



보도자료

담당자 정성희 선임연구위원(3775-9004)

보도 2026. 6. 29.(월) 16:00부터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3775-9115)

매수 총 5매

보험연구원, 「2026 International Workshop on Risk and Insurance」 국제세미나 개최

AI·사이버리스크·기후변화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국제 학술 교류의 장 마련
- AI·기후가 만드는 '시스템 리스크' 시대, 보험의 역할을 해외 석학들이 진단 -

- 보험연구원(원장 김현수)은 포항공과대학교,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와 공동으로 6월 29일 「2026 International Workshop on Risk and Insurance」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이번 국제세미나는 AI 혁명과 사이버 리스크, 기후변화와 극한 기상, 보험 데이터 사이언스와 시장 혁신 등 보험산업이 직면한 시의성 높은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음
 - 특히 AI 확산이 초래한 신종 위험과 극한 기상 현상 증가 등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최신 연구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함께 나눔
- 김현수 보험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AI와 기후변화가 위험의 본질 자체를 바꾸면서 글로벌 보험산업이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와 데이터 기반 시장 혁신을 다루는 오늘 논의가 ‘보험의 경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AI와 기후 등 새로운 위험이 빠르

계 시스템화되는 현 시점에서, 보험이 무엇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보가능성의 경계'와 '보험의 역할'을 다시 물어야 할 때이며, 그 답은 학계·산업·정책의 국제적 협력에서 나온다"고 강조함

○ 행사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됨. 첫 번째 세션은 「AI 혁명과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논의함

- Arthur Charpentier 교수(퀘벡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는 『보험에서의 세분화, 상호부조, 그리고 AI 리스크』 발표를 통해 데이터와 예측 모형, AI 기술의 발전이 보험의 위험 분류와 가격 산정, 언더라이팅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음을 설명함. 특히 보험이 개인화될수록 전통적인 상호부조의 원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I 리스크의 등장으로 새로운 부보가능성의 경계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Ruo(Alex) Jia 교수(제네바협회, 베이징대학교)는 『AI 시대의 보험』 발표를 통해 생성형 AI가 기업에 초래하는 새로운 리스크 환경과 보험회사의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고객 인식 등 생성형 AI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위험 인수자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자로 확장되고 있음을 강조함
- Maochao Xu 교수(일리노이 주립대학교)는 『사이버 리스크 가격 산정: 현재의 과제와 AI 기반 미래』 발표를 통해 사이버 리스크 가격 산정의 현황과 한계를 설명함. 특히 익스포저 기반 언더라이팅, 보안 수준 평가, 시나리오 기반 위험평가 등 기존 접근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시스템적 리스크, 극단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AI 기반 보안 분석과 실시간 모니터링이 향후 사이버 보험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함
- 발표 후 패널토론에서는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용민 前 뮌헨리 전무와 손재희 보험연구원 실장을 비롯한 발제자 전원이 참여하여 AI와 사이버 리스크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함

○ 두 번째 세션은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에 대해 논의함

- Qihe Tang 교수(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시드니))는 『시스템적 기후 리스크 측정』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체계를 제시함. 특히 기후 충격과 시장 충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경우 잠재적 경제 손실이 과소평가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두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해 기업 및 시스템 수준의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Jose Garrido 교수(콩코디아대학교)는 『보험계리사는 왜 기후 리스크를 모델링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발표를 통해 극단적 기온 상승과 홍수, 가뭄, 폭풍, 해수면 상승, 산불 등 기후변화가 보험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 또한 계리기후지수(Actuaries Climate Index; ACI)와 그 확장 사례를 소개하며, 보험과 초과 사망률, 금융·산업 분야에서 기후지수를 활용한 리스크 측정의 중요성을 논의함
- Peng Shi 교수(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는 『기상 기반 보험 응용을 위한 딥러닝』 발표를 통해 기상정보를 보험 가격 산정과 상품 관리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접근법을 제시함. 특히 기상 변수와 보험성과 간의 비선형 관계를 유연하게 포착함으로써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정교한 위험 차별화와 보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을 설명함
-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은 Zhiyu(Frank) Quan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너-섐페인 캠퍼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됨. 변지석 前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박사),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및 발제자 전원이 패널로 참여해 기후 리스크와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함

○ 세 번째 세션은 「보험 데이터 사이언스와 시장 혁신」에 대해 논의함

- X. Sheldon Lin 교수(토론토대학교)는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활용한 운전 리스크 평가: 두 가지 주행 기반 접근법』 발표를 통해 차량 텔레매틱스 데이터에 기반한

운전 리스크 평가 방법을 제시함. 특히 고도화된 확률 모형으로 주요 운전 패턴을 분석하고, 사고 위험과 관련된 비정상 주행 패턴과 공격적이고 부주의한 운전 행태를 식별할 수 있음을 설명함

- Runhuan Feng 교수(칭화대학교)는 『DeFi 보험의 토크노믹스』 발표를 통해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에서 암호 자산의 사이버 리스크를 보장하는 DeFi 보험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설명함. 특히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가격 산정과 보험금 지급, 자본 관리 방식, 그리고 토크노믹스 기반 커뮤니티 운영 방식을 소개하고,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과 규제가 필요함을 강조함
 - Tim Boonen 교수(홍콩대학교)는 『날씨 지수 보험의 독점 가격 책정』 발표를 통해 보험자와 농업인을 각각 선도자와 추종자로 설정한 순차게임 모형을 바탕으로 날씨 지수형 보험의 가격 결정 문제를 설명함. 특히 다양한 보험료 산정 방식과 신경망 기반 지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결합할 경우, 가격 책정의 유연성이 확대될수록 균형 이익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시함
 -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은 정힘찬 사이먼프레이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송윤상 前 흥국화재 대표이사(박사), 권승수 코리안리 전무 및 발제자 전원이 패널로 참여하여 보험산업의 데이터 활용과 시장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학계 연구자, 보험업계 관계자, 정책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하여 보험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리스크 환경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함

- 프로그램 -

시간	내 용
10:00 ~ 10:05	(환 영 사) 김현수 (보험연구원 원장)
10:05 ~ 10:10	(개 회 사)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10:10 ~ 10:15	단체사진 촬영 (VIP 및 발표자)
<세션1 : AI 혁명과 사이버 리스크>	
10:15 ~ 10:35	(주제발표1) 보험에서의 세분화, 상호부조, 그리고 AI 리스크 Arthur Charpentier (퀘벡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 교수)
10:35 ~ 10:55	(주제발표2) AI 시대의 보험 Ruo (Alex) Jia (제네바협회, 베이징대학교 교수)
10:55 ~ 11:15	(주제발표3) 사이버 리스크 가격 산정: 현재의 과제와 AI 기반 미래 Maochao Xu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교수)
11:15 ~ 11:55	(패널토론) 좌 장 :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토 론 : 최용민 (前 만해리 전무), 손재희 (보험연구원 실장), 발제자 전원
11:55 ~ 13:00	오 찬
<세션2 : 기후 변화와 극한 기상 현상>	
13:00 ~ 13:20	(주제발표4) 시스템적 기후 리스크 측정 Qihe Tang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시드니) 교수)
13:20 ~ 13:40	(주제발표5) 보험계리사는 왜 기후 리스크를 모델링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Jose Garrido (공코디아대학교 교수)
13:40 ~ 14:00	(주제발표6) 기상 기반 보험 응용을 위한 답러닝 Peng Shi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교수)
14:00 ~ 14:40	(패널토론) 좌 장 : Zhiyu(Frank) Quan (일리노이 대학교 어배너-섐페인 캠퍼스 교수) 토 론 : 변자석 (前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 과장(박사)),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발제자 전원
14:40 ~ 15:00	Break Time
<세션3 : 보험 데이터 사이언스와 시장 혁신>	
15:00 ~ 15:20	(주제발표7) 텔레매틱스 데이터를 활용한 운전 리스크 평가: 두 가지 주행 기반 접근법 X. Sheldon Lin (토론토대학교 교수)
15:20 ~ 15:40	(주제발표8) DeFi 보험의 토크노믹스 Runhuan Feng (칭화대학교 교수)
15:40 ~ 16:00	(주제발표9) 날씨 지수 보험의 독점 가격 책정 Tim Boonen (홍콩대학교 교수)
16:00 ~ 16:40	(패널토론) 좌 장 : 정힘찬 (사이먼프레이저 대학교) 토 론 : 송윤상 (前 흥국화재 대표이사(박사)), 권승수 (코리안리 전무), 발제자 전원

첨부: 발표자료 각 1부. 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http://www.kiri.or.kr>)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